

광주 노인 4명 중 1명 '나 혼자 산다'

■ 2015년 광주 노인 현황

65세 이상
16만7610명

독거노인
3만9866명

독거노인 3만9866명 중 2만1600명 중점 관리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4650명·응급상황 대비 741가구 뿐
시, 7일까지 일제 조사...네트워크 활용 안정망 구축키로

매년 광주지역 독거노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3만9866명으로 4만명에 육박했다.

2013년 3만2484명에서 2014년 3만6943명 등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2012년 3만578명과 비교하면 1만명이 늘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16만7610명)의 23.8%에 달한다. 노인 4명중 1명꼴로 홀로 사는 셈이다.
독거노인 절반 이상인 2만1600여명이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돌봄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은 느슨하다.

안정확인이나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650명에 그치고 있다.

집안에 화재나 가스누출 감지기, 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서비스 구축 가구는 741가구에 불과하다.

가족이나 이웃 등 사회와 관계가 단절된 노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친구 만들기'도

180명에 그쳤다.
돌봄서비스를 하는 생활관리사도 2013년 162명에서 지난해 173명, 올해는 176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사회문제가 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 급증도 사회안전망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시는 오는 7일까지 일제 현황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독거노인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장, 부녀회, 읍면배달원, 우편배달원 등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할 경찰서 지구대와 연계해 마을 순찰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도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

한국형 발사체 개발 연기

75t급 엔진 불안정 등 영향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한국형 발사체(KSLV-2) 개발이 원래 일정 보다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부 우주개발진흥심사위원회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시험발사체 발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발사체는 3단형 한국형 우주 발사체의 시험 모델로, 75t급 액체 엔진과 7t급 액체 엔진 2단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0년 시험발사체를 발사하기로 앞서 내년 말 시험용으로 시험발사체를 쓸 계획이었다.

미래장조과학부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에서 항우연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75t급 엔진의 연소기 불안정 문제가 있었다. 불안정 연소는 연료를 태우는 도중 온도와 압력이 요동치는 현상으로 1930년대 초기 로켓 개발 때부터 각국 연구자를 괴롭혔던 난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원래 일정보다 10개월 정도가 지연됐다. 현재는 연소 불안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75t 엔진은 지난 5월 3일 1.5초의 짧은 연소시험을 진행한 뒤 6월 8일에는 75초 동안의 연소시험을 무사히 마쳤다. 항우연은 이번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음에는 140초 연소시험을 진행할지를 검토 중이다.

연료(추진제) 탱크를 용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발사체의 연료 탱크 두께는 일반적인 산업용 탱크 두께보다 매우 얇아 용접과정에서 쉽게 변형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송암·유덕영업소 하이패스 개통 지난 1일 자정을 기해 개통된 제2순환도로 송암영업소와 유덕영업소 하이패스 차로를 승용차들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3-1구간 송암영업소와 4구간 유덕영업소 하이패스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1일 개통했으며, 1구간 소태영업소도 오는 9월1일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현기기자 choi@

미세먼지 해결 5조 투입...경유차 교체시 소비세 70% 감면

정부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

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선박배출가스 관리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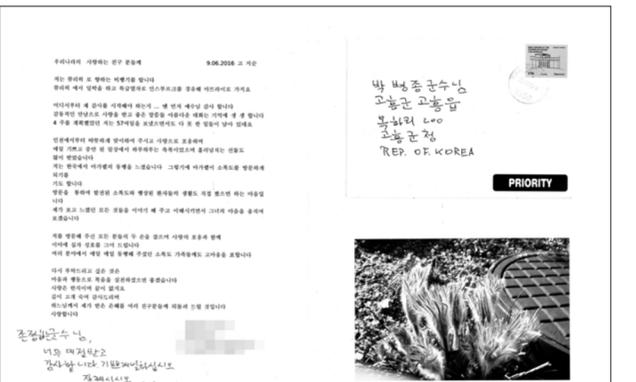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2017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예

비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이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측정망은 현재 152곳에서 2018년에는 287곳으로, 2020년에는 293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모델을 다양화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고향으로 돌아간 마리안느 수녀 두번째 편지 "소속도 생활은 축복" 고흥군민에 감사

40여년간 소속도 한센인을 돌보던 마리안느(Marianne Stor·82) 수녀가 한 국방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고흥군민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지난 1일 고흥군에 따르면 마리안느 수녀는 최근 박병종 고흥 군수에게 A4지 1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리안느 수녀는 "감동적인 만남으로 사랑을 받고, 좋은 말씀과 아름다운 대화가 기억에 생생하다"며 "4주를 계획했던 저는 57일을 보냈으면 서로 다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매일 기쁘고 충만된 일상에서 하루하루는 축복이었으며, 흘러넘치는 선물도 많이 받았다"며 "여러 분야에서 매일 매일 동행해 주셨던 소속도 가족들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고 말했다.
한센인을 함께 돌보던 마가렛(Margareth Pissarek) 수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냈다.

마리안느 수녀는 "한국에서 마가렛의 동행을 느꼈다"며 "마가렛이 소속도를 방문해 발전된 소속도와 향상된 환자들의 생활도 직접 봤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할매 수녀"로 불리던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소속도에 들어와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2005년 편지 한장만을 남기고 홀연히 고향으로 떠났다.

마리안느 수녀는 지난 5월 소속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다시 소속도를 찾았지만 몸이 아픈 마가렛 수녀는 소속도를 방문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고흥=주각중기자 giju@

전남 2165개 섬 정보 인터넷 공개

전남도가 지난 1일부터 전남도내 모든 섬 자원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http://islands.jeonnam.go.kr>)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자료는 섬 자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맡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전남도내 각 섬의 기본현황, 역사·생활문화·환경·생태자원을 분야별로 조사한 A4용지 3만 페이지 분량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함한 섬의 역사·생활문화·생태·환경자원을 총망라한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틀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은 전국 3358개 섬 가운데 65%인

2165개를 보유하고 있는 섬의 보고다. 섬 개수는 유인도 279개, 무인도 1886개 등으로, 54개(유인도 17, 무인도 37) 줄었다. 20개 섬에서는 인구 감소로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조사됐다.

공개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현황으로 섬의 위치, 면적, 인구, 육지와의 거리, 토지현황, 주요관광지 등을 수록했다. 특히, 여행객 편의를 위해 여객선, 숙박 같은 정보도 담았다.

도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섬 고도화 사업과 도서 종합개발사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섬 관광 콘텐츠 개발, 테마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콘텐츠 창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현기기자 chadol@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콘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담양군 대덕면 2층전원주택 건물 56평 토지 262평 주변환경양호 건물상태최상 ▶ 감정가 2억 최저가 2억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전입가능 창고상태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7평 토지 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서구 쌍촌동 2층단독주택 건물 62평 토지 55평 위치좋은 한국병원인근 ▶ 감정가 1억5천 최저가 1억1천만원
-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도로변 점포 전시장 및 대리점적합 토지127평 건물120평 투자적합 ▶ 최저가 3억3천2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마지막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encore 호텔

RAMADA JEONJU @e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